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선한일과 말에 굳건 합시다 성경: 살후2:11-17

11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2:11-17)

오늘날 대한민국은 미혹의 소리가 많다.

이제는 버젓이 미혹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한 말 인양, 또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적인 생각인양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소수의견이라도 법적으로까지 보호를 받고자하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으니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이단들도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요구하고 나서고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포교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특히 북한에서 주장하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나, 김일성 주체사상까지도 사

상의 자유에 속하니 억압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종북’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별, 나이, 장애여부, 병력, 인종, 국가,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혼인여부, 임신, 출산, 가족형태와 가족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악의적으로 인종차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넓게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별되어 있다고 차별하지는 말아달라는 요구이다. 이지매 금지법이다. 물론 당연한 말이다.

세상의 어느 누구이든지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분명하게 특정 개인을 지목하면서 구별되는 항목을 명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나 구별된 행동이나 사상에 대해서 윤리적 판단을 내리거나 정치적 판단을 내리거나 선악을 구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역차별일 뿐이다.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자유와 판단의 자유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생각은 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물론 그런 말이나 언론이나 행위에 대한 선악간의 구별은 역시 각자의 뜻이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위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생명현상의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선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생명의 유지와 안전을 위해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 몸 안에 위해요소가 들어오게 되면 즉각 반응을 하여 이 위해요소를 제거하려고 하고, 제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한

다.

또한 자연스럽게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행동이나 생각들이 악하게 사용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그런 악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차별금지법이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자유로운 생각들을 조종하려는 쪽으로 움직일 수는 없고, 더구나 악을 방지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것이 정당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식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일부 차별금지법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조항을 집어 넣기를 원한다.

그것은 현재 발의된 조항들 중에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에 관련된 조항들이다.

공교롭게도 이 네가지는 개신교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다. 성 소수자들, 이단들,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를 철저하게 반대하는 자들이다.

사실 성 소수자들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소수자들이고, 종교적으로 이 단에 속한 자들이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도 소수자들이다. 그런데 분명한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세력들은 역시 북한 정권과 관계가 있는 세력들이다. 현재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악랄하게 핍박하는 정권이다. 당연히 남한의 개신교를 아주 싫어한다. 북한은 남한 정부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미 제국주의의 괴뢰정부라고 폄하하고,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적 건국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더욱 개신교를 공격해서 헌법의 정체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탈북민들을 돋는데 목숨까지 걸고 희생적으로 돋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한의 개신교회와 관련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전쟁은 사상전이요, 이단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김일성 우상화도 일종의 종교적이다.)

그리고 개신교인이 아닌 일반 대중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며 관심도 크게 기울이지 않는다. 오직 독소조항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개신교에서만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물론 이 외의 다른 조항들은 모두 당연한 것들이고 마땅히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개신교에서 적극적으로 차별당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또한 분명하게 성 소수자들에 대해서, 북한을 찬성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자들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은 비기독교적이다. 설령 그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잘못에 해당되는 것이지 전체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언행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동안 개신교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고, 여기에 편승해서 성 소수자들이나 이단들이 덩달아 개신교를 향하여 공격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정권이 더 이상 남한의 개신교회를 공격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타 이단이나 성 소수자들의 의견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 정권의 보이지 않는 공격도 멈추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미혹의 영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진리에 바로 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지만 독소조항까지 덩달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요즘은 땅굴문제를 가지고 일부 개신교인들이 두려움을 퍼뜨리고 있으나 이는 나라의 안보와 관계된 사항이므로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왜 이처럼 한국사회가 혼란스러운가?
그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다.

11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미혹의 영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불의를 가리우기 때문에 교묘하게 휩쓸리기 쉽다.

10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히3:10)

그러므로 항상 교회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한 두 군데가 아닌, 성경의 여러 곳에서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7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일3:7-8상)

26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일2:26)

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딤전 4:1)

3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후 11:3)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전6:9)

10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6:10)

성경에서는 믿는다고 하나 불의한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서슴치 않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신념으로 행하는 것으로 여겨 전혀 악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나쁘기 때문에 자신이 무리하게 행동해도 정당하게 여긴다. 이것이 믿음의 악용이다. 주를 믿는 자들은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인류역사는 거짓 신념에 가득찬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적이었는지를 증거하고 있다.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 24:11)

그러면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며 모든 죄악을 경계하며 불의를 싫어해야 한다.
2.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다.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2:11-17)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받으며, 모든 선한 일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 대충 선하지 말고 굳세게 선해야 한다.

말이 항상 정직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할 말만 하고 말 수가 적어야 한다. 대화에 필요한 나의 분량을 지켜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말씀: 계시록 17장

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2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4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찬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멀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1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 네가 보던 열 뿐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앓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6 네가 본 바 이 열 뿐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8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계17:1-18)